

<성별과 대화문제>

1. 문제제기

-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생물학적, 심리적인 것 외에도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양자 간에는 명시적이든 암시적이든 힘(권력), 다시 말해 지배와 복종의 위계 관계가 배후에 도사리고 있다. 이는 특히 갈등 상황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여자들은 남성들에 비해 언어적 전달을 사회적 복종의 형태로 실행하고, 순종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많다고 한다.

- 하지만 남성과 여성의 이러한 언어 행동의 차이는 다른 아닌 힘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친근함에 대한 표시인 연대감은 힘과 대립 관계에 있다. 남성과 여성의 상이한 대화 스타일은 힘과 연대라는 두 요인을 고려해 볼 때 우연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회적, 문화적 차이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여기서는 남성의 말하기와 침묵, 여성의 말하기와 침묵에 담긴 사회적 맥락과 상관 관계를 학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특히 남성과 여성의 객관적인 ‘차이’나 ‘다름’보다는 일방적으로 사회에 의해 주입된 성별에 대한 이미지, 편견, 선입견과 그에 대한 문헌적 증거, 남성의 침묵 배경, 언어적 폭력, 성별에 따른 대화문제 등을 논의의 주안점으로 삼고자 한다.

2. 성역할 고정관념

- ‘성역할 고정관념 sex-role stereotypes’이란 사회에서 무엇이 전형적으로 여성적인 것인가 아니면 남성적인 것인가 하는 모습을 반영하는 선입견들이다. 그것은 자신의 생각에서 기인하느냐, 아니면 타인의 생각에서 기인하느냐와 같이 책임 소재를 묻는 것이 아니라 사회화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속에 내면화되어 우리의 기대 행동을 규정한다. 이러한 기대치를 기준으로 우리는 ‘자아 구상 Selbstkonzept’과 ‘타자 구상 Fremdkonzept’을 만들어낸다. 그로 인해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남성적인 특성들이 사회에서 보다 우월하게 평가되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를 남정보다 부족한 존재로 인식할 위험이 있다.

<표 1> 성 역할 특징

남성	여성
능동적인	조용한
모험을 좋아하는	부드러운
공격적인	여성의 언어는 타인의 마음을 해
야망을 가지고 있음	치지 않음
경쟁적인	온화한 감정을 표현함
지도자처럼 행동함	재치 있는
결정을 내리길 좋아함	확신이 부족한
직접적인	센스 있는
지배적인	수다스러운
객관적인	예술과 문학을 좋아함
자신감 있는	종교적임
쉽사리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음	
감정을 숨김	
독립적인	
수학과 자연과학을 좋아함	
논리적으로 생각함	
쉽게 결정함	

- 성역할 스테레오타입 가설 sex-dialect-hypothesis은 성차이에 대한 구조와 전형화 과정을 중시한다. 언어적 관철 형태를 살펴보면 사회적으로 중개된 성별에 대한 이미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칙적으로 차이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의 시각에서 생겨난다는 것이다.

- Thimm은 성역할 스테레오타입이 여성들의 관철 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양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성 혹은 남성의 ‘본성 Natur’에 대한 표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범주화 과정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남성’ 또는 ‘전형적인 여성’과 같은 평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Thimm에 의하면, 이때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3K: Küche, Kinder, Kirche)은 진부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다.

- 성역할 스테레오타입은 여성과 남성의 언어적 태도에서 입증할 수 있는 차이가 존재한다기보다는 스테레오타입과 결부되어 기대에 대한 판단이 내려진다는 사실, 다시 말해 자가 진단과 같은 예언적인 의미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비록 남성과 여성의 언

어 태도가 동일할지라도 화자의 성별에 따라 편견과 스테레오타입적인 표상이 생겨날 수 있다.

- 우리는 대개 부지불식간에 어떤 사람의 외모와 태도, 직업에 의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때 남성의 특성은 사회적으로 여성의 특성보다 더 존경을 받는다. 사실상 성역할에 따른 고정관념은 모든 사회적 변화와는 무관하게 존속한다. 그 때문에 현실에 대한 지각은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이 둘은 서로 구속을 받는다.

- 예컨대 어떤 여자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녀의 행동은 고정관념이라는 틀 속에서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 시키려는 여성은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동일한 행위에 대해 남자들은 능력으로 인정받지만 여성들의 업적은 때때로 폄하된다. 남성들은 자신의 업적과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들을 개발하는 반면, 이러한 일이 여성들에게는 그리 수월치 않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자신의 업적을 강조할 경우에는 때로 부정적인 반응을 고려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3. 수다와 침묵

- 여러 사회에서 성별에 어떠한 특성이 귀속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특성은 대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고,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남자는 입이 무거운 반면 여자는 말이 많다는 편견이 이에 해당된다.

- 여성과 여성의 실수나 결함에 대한 공격은 예로부터 모든 민족의 문헌에 나타나는 공통사항에 속한다. 인도와 이집트의 많은 관념들은 제쳐두고라도 여자에 대한 험담은 그리스어와 라틴어 문헌에서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나타난다. 온갖 나쁜 것, 이를테면 거짓, 교활, 변덕, 배신, 부도덕, 중상모략 등이 여자들에게 덧씌워진다.

- 전통적으로 여자에게 가해지는 가장 대표적인 비난은 수다스럽고 험담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고대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속담은 여자의 수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오늘날까지 많은 영역들에서 여성의 언어에 적용되는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와 침묵에 대한 요구는 속담 속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1) Kein Kleid steht einer Frau besser als Schweigen.

(여자에게 침묵보다 더 잘 어울리는 옷은 없다.)

- (2) Schweigen steht einer Maid schöner als das schönste Kleid.
(침묵은 여자에게는 어떠한 옷보다도 더 아름답다.)
- (3) Schweigen ist der Frauen schönstes Kleid.
(침묵은 여자의 가장 아름다운 옷이다.)
- (4) Schweigen ist ein Schmuck der Frauen.
(침묵은 여자의 보석이다.)
- (5) Schweigen stehet den Weibern wohl an.
(침묵은 여자에게 잘 어울린다.)
- (6) Schweigen ziert das Weib.
(침묵은 여자를 치장해준다.)
- (7) Schweigen und Erröthen sind die Waffen des Weibes.
(침묵과 얼굴 붉힘은 여자의 무기이다.)
- (8) Es steht einer Frau nicht gut an, den Mund zu öffnen, außer beim Essen.
(밥 먹을 때 외에 입을 여는 것은 여자에게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다.)
- (9) Durch Schweigen hat eine Frau noch nie eine Sache verdorben.
(지금까지 어떤 여자도 침묵 때문에 일을 그르친 적은 없다.)
- (10) Wer etwas will verschweigen ha'n, der darf es keinem Weibe sa'n.
(뭔가를 감추려고 하는 자는 절대 여자에게 그것을 말해서는 안 된다.)

- 그에 반해 남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11) Er ist ein Mann von wenigen Worten.
(남자는 말수가 적은 사람이다.)
- (12) Er pflegt seine Worte genau zu wählen.
(남자는 자신의 말을 정확히 선택할 줄 안다.)
- (13) Er schweigt wie ein Grab.
(남자는 무덤과 같이 침묵한다.)

- 속담은 고정된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속담에서 나타나는 옛 형태인 Weib라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것처럼 Frau로 대체할 순 없다. 여성과 남성의 대립을 주제로 삼는 속담과 관용구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남성과 남성적인 것에 우위를 둠과 동시에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여성과 여성적인 것은 규범에서 이탈한 변칙으로 보고 이에 부정적인 꼬리표를 붙이는 것이다. 그로 인해 사회에서 여자에게는 남자보다 하위의 역할이 부여된다.

- 한편, 말이 많은 남자는 수다스러운 늙은 여편네로 간주될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수다는 전형적으로 여자들에게 해당되는 속성이기 때문이다.

4. 남자의 침묵과 언어폭력

- 오늘날에도 여자는 여전히 말이 많고 남자는 과묵하다는 전통적인 견해가 부지불식간에 계속 주입되고 있다. Tannen은 성별에 따른 언어적 차이를 각 집단의 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 즉, 남자는 주로 자신의 지위(지배)를 행사하는 데 관심을 가지는 반면에 여자는 친밀감과 유대감을 조성하는 데 신경을 쓴다는 것이다.

- Tannen은 이에 대해 ‘보고 언어 report-talk’와 ‘친교 언어 rapport-talk’, 다시 말해 ‘공적 발화’와 ‘사적 발화’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남자들은 대화 상황과 대화 주제가 사적이고 주관적인 것일수록 침묵을 하는 반면, 여자들은 반대로 공적이고 객관적인 상황에서 침묵을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분법적 분류는 여성의 언어 태도를 전통적인 상(像)으로 축소시켜 버린다. 다시 말해 여자들은 조화와 유대를 추구하고, 정치에 무관심하며, 개인적인 관심사에서 벗어난 주제에는 토론을 할 능력이 없거나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 Tannen의 출발점은 이해관계의 갈등을 절충하는 공통의 언어를 찾을 수 있도록 성별 간의 오해를 없애는 데 있었지만 심한 비판에 직면하였다.

- Lakoff는 여성들에게 사적인 대화에서 침묵을 강요하는 장치가 공적인 대화에서도 작동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침묵을 강요하는 것은 성별 간의 문화적 오해에서 비롯될 수 없다는 것이다.

- 또 Günthner는 성별에 전형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평가에서 벗어난 개별적인 편차도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남자들은 개인적인 갈등에 직면할 때 침묵을 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남자는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유지하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입을 굳게 다문다는 것이다. 따라서 침묵은 남자의 경우에는 지배 도구가 된다. 하지만 여자들에게는 여전히 현실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남자들보다 훨씬 더 적다. 그 때문에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더 자주 침묵을 하게 되는데, 침묵은 여자의 경우에는 수동적인 종속 도구로 전락한다.

- Wieck는 혼성 간의 대화 상황에 나타난 남자의 침묵을 흥미롭게 다룬 바 있다. 그는 남자가 침묵을 지키는 되는 경우를 다섯 가지 특징으로 들고 있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감정 배척과 걱정(흥분)

- 강함과 동요되지 않는 확고부동함에 대한 남성의 자화상은 흔히 자신의 감정, 특히 불안감에 대해 표현하지 못하는 데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언어적으로 감정을 억제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다시 말해 그러한 감정을 언어적으로 나타내지 않으려고 남자들은 종종 화를 내고 분노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Wieck는 역설적으로 남자의 걱정에서 ‘침묵의 과잉’을 발견한다. 남자가 이러한 걱정을 없애지 못할 경우, 침묵은 파괴적으로 작용하고, 심근경색과 같은 육체적, 정신적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2) 여성의 폄하

-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언어적 차별은 명시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특히 남자들이 선호하는 함축적인 축소형이나 은유적인 명칭(가령, 여성에 대해 Häschen, Maus, Spatz, Biene 등으로 부르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이러한 비유적인 표현들은 무엇보다 동물명과 신체 부분에 대한 명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하지만 남성의 침묵은 여성해방 운동을 부르짖는 여성들의 노력에 대해 무시 내지 무관심으로 일관할 때 극에 달한다. 이는 한편으로는 남성 우월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에 대한 편견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다.

3) 순전한 잡담

- 수다는 여성의 언어 태도에만 귀속될 수 있는 특성은 아니다. 남자들도 종종 말을 하도록 강요받는다. 이때 주요 관심사는 대화 파트너와의 관계 구축과 건설적인 정보 교환의 의미에서 현안 문제의 의사소통적 가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4) 질문하지 않기

- 질문을 하지 않으려는 생각은 첫 번째의 “감정 배척과 걱정”에서 언급한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남자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여성의 감정과 불안에 대해 논쟁하지 않으려고 침묵한다. 이로써 남자들은 전지전능한 인상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나 남자가 생각하는 여성상이 주로 추측과 편견에 바탕을 두고 있을 경우, 다시 말해 여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가를 묻지 못하는 무능력에 기초해 있을 경우, 이러한 남성의 침묵은 더 위험한 것일 수 있다.

5) 경청하지 않기

- 경청도 하나의 기술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경청이란 대화에 참여해 언제나 관심을 보이는 능동적인 듣기 과정을 의미한다. 하지만 많은 남자들은 여자 대화 파트너에 대해 이러한 관심을 가지지 못한다. 왜냐하면 경청은 남자에게 있어 첫째, ‘수동성의 행위 Akt der Passivität’이기 때문이고, 둘째, 남자들은 대개 자신들의 생각

에 우선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남자는 여자 대화파트너에 대해 입을 다물어 버린다. ‘최소반응 minimal response’의 사용에 대한 Fishman의 연구 역시 혼성의 대화에서 남자들은 청자의 역할에서는 여성 화자를 격려하거나 지원하는 일이 아주 드물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 언어에 의한 성차별은 언어를 통한 폭력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Galtung은 폭력을 ‘인위적인 폭력’과 ‘구조적인 폭력’으로 구별하였다. 즉, 폭력은 사람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통용되는 질서로 이루어진 상호작용 체계 내지 구조에 의해서도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 관련 당사자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손해가 발생한다.

- Homberger도 폭력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한 바 있다. 위에서 Wieck가 말한 남성 침묵의 다섯 가지 특징은 Homberger의 언어를 통한 남성 폭력의 의미 변형에 대한 분류와 대단히 유사하다. 하지만 Homberger는 언어에 의한 힘의 요인, 즉 권력 행사의 미묘한 형태로서 남성의 언어 태도에 의한 여성의 억압에 주목한다.

5. 성별에 따른 전형적인 대화 문제

- Goffman의 정의에 따르면, 문제란 누군가가 무엇을 행한다는 것이며, 동시에 여성 혹은 남성을 혼동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 대화 문제 Gesprächsstil란 언어 태도의 모든 표현면의 총체를 가리키는데, 남성 또는 여성 화자는 대화 문제으로써 의사소통 과정에서 몇 번이고 자신을 확인시킨다. 하지만 이러한 대화 문제는 성역할에 따른 고정관념, 즉 여성 또는 남성이 이러이러해야 한다고 하는 우리가 가진 표상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이미지는 여성적인 대화 문제 또는 남성적인 대화 문제에 대해 가지는 우리의 사고에도 영향을 미친다.

- 성별에 따른 전형적인 대화 문제를 규정할 때에는 다른 쪽 성보다 어느 한쪽 성이 더 자주 사용하는 대화 문제의 특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에 반해 성별에 특유한 대화 문제는 두 성 가운데 단지 한쪽 성에서만 나타나는 특별한 특징들을 일컫는다.

- Werner는 대화 문제의 특징을 남성과 여성의 성 정체성을 구성하는 특징으로 간주한다. “여성 문제와 남성 문제는 본질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자신들의 앞선 발화 기여와 그 성과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본 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특징지어진다.”

- Gräbel(1991) 역시 5개의 TV 토론을 분석한 후 의사소통상의 문제 특징을 성별에

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Gräbel은 여성의 대화 문체를 지배적인 언어형태가 부족한 것으로 특징짓는다. Gräbel은 다음 도표에서 보듯 여성의 대화 태도뿐만 아니라, 남성의 대화 태도에 대해서도 성별에 따른 특징을 밝혀내었다.

<표 2> 공식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성별에 따른 전형적인 대화 문체

여성적인 대화 문체	남성적인 대화 문체
적극적인 청취자이다. 완전한 문장을 더 많이 사용한다. 지원을 더 많이 한다.	종종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말을 하고 빈번하게 가상적인 관계를 만들어 낸다.
완화된 표현을 사용한다. 진술 대신 질문을 더 많이 한다. '좋아한다', '생각한다'와 같은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우리 의사들'과 같이 신분을 밝히는 언어적 수단을 선호한다.
대화 문체는 지배적이지 못하다.	대화 문체는 지배적이다.

- 지배적인 대화 태도란 그때그때 실제 문맥에서 성별을 위계적으로 조직하는 행위가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속하는 범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수 있다.

- 누가 말을 더 자주 중단시키며, 누가 누구의 말을 중단시키는가?
- 누가 더 자주 최소반응 minimal response을 보이는가?
- 누가 더 오래, 더 자주 이야기하는가?
- 누가 주제를 도입하며, 누가 자신의 주제가 대화 테마로 되도록 관철 시키는가?
- 누가 테마 교체를 야기함으로써 대화 테마를 조종 또는 통제하는가?

- 남자들은 대화에서 경쟁적인 스타일을 선호하는 반면, 여자들의 대화는 협동에 무게를 두고 있다. 남자들의 상호작용 스타일은 힘에 기반을 두고 있는 반면, 여자들의 스타일은 연대와 지지에 기반을 두고 있다.

- Trömel-Plötz는 이와 관련하여 네 가지 가설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 네 가지 가설 모두 직접적으로 남성에 의한 여성의 언어적 억압, 즉 여성의 침묵에 대해 언급한 것이라 하겠다.

첫째,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더 자주 발언권을 쥐고 더 오래 이야기한다.

둘째, 남자들은 여자들의 말을 체계적으로 중단시키지만, 여자들은 남자들의 말을 중단시키는 일이 거의 없다.

셋째, 여자들은 발언권을 얻기 위해 투쟁해야 하고, 또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 싸워야 한다.

넷째, 남자들은 대화 주제를 결정하고, 여자들은 대화 협력을 한다.

- Maltz/Borker는 「남자와 여자의 오해-문화적인 관점에서」라는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즉, ‘두 문화 이론 Theorie der zwei Kulturen’에서도 여성들의 대화 문체는 협조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남자들이 격론을 벌이고 말로써 자신을 내세우는 반면, 여자들의 ‘말하는 수완’은 재치 있는 화법으로 이루어져 있어 공개적인 경쟁은 은폐되며, 적대적인 내용은 호의적인 형태로 포장된다. 결국 대화 운영 방식에 대한 상이한 해석으로 인해 의사소통이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다. Maltz/Borker가 주장하는 대화 문체와 상이한 해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성별에 따른 전형적인 대화 문체

여성적인 대화 문체	남성적인 대화 문체
명백히 의사소통을 지향함	배후에서 지지하는 태도 방식을 취함
공통적인 주제 취급	자신의 지식을 과시함
타인의 발화 기여를 고려함	비협조적인 대화 문체
협조적인 대화 문체	

<표 4> 남성과 여성의 상이한 해석에 대한 예

여성적인 대화 문체	남성적인 대화 문체
질문은 대화를 계속 이어준다.	질문은 정보 입수에 사용된다.
발화 기여 간의 연관성은 중요하다.	연관성은 무시될 수 있다.
말에 의한 공격은 자신들에게 향하며 파괴적이다.	말로 공격함으로써 대화를 촉진시킨다.
점진적인 주제 전개를 선호한다.	갑작스러운 주제 교체를 선호한다.
문제를 토론하고 도움을 제공한다.	문제에 관한 이야기는 해결책에 대한 요청이다.

- Maltz/Borker에 따르면, 여러 가지 오해는 상이한 해석에서 기인하므로 남녀의 상이한 대화 문체에 대해 알게 되면 그러한 오해는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 하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예컨대 대화 태도에서의 차이는 어떻게 생겨나는가, 어떠한 사회화 요인들이 거기에 기여하는가, 몇 살부터 여자아이와 남자아이는 의사소통 태도에서 차이를 보이는가, 이미 어릴 때부터 성별에 따라 다른 언어습득을 하는가, 등등의 문제는 계속 규명해야 할 사안들이다. 비록 오늘날의 시각에 따라 보편적인 대화 문체를 찾아내거나, 여성에게는 이러한 대화 문체를, 남성에게는 저러한 대화 문체를 할당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여겨질지라도 남성 대화 문체 혹은 여성 대화 문체라는 개념을 쉽게 무시해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6. 생각거리(토론)

- 남성과 여성의 말하기와 침묵 태도에는 상이한 가치 판단과 힘의 논리와 스테레오 타입이 침윤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말하기 영역에서 보면 남자의 말은 진중함을 담지하고 있지만, 여성의 말은 수다 내지 잡담과 동일시되어 버리기 일쑤다.

- 침묵 영역에서도 여자들은 일상에서 끊임없이 침묵을 강요당하지만, 남자들은 주로 개인적인 갈등에 직면할 때 침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남자는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유지하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입을 굳게 다물게 된다. 따라서 침묵은 남자의 경우에는 지배 도구가 된다. 하지만 여자들에게는 여전히 현실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남자들보다 훨씬 더 적기 때문에 남자들보다 더 자주 침묵을 하게 되는데, 여자의 경우에는 침묵은 수동적인 종속 도구로 전략한다.

- 사람들은 수많은 상황에서 자신의 개성과 정체성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 또는 역할 담당자로서 인식되고 대우받는다. 이러한 유형화는 어느 정도 분명한 행동에 대한 기대와 결부되어 있으며, 이를 고려할 때 인간관계의 중요한 부분을 형성하는 전형적인 행동에 대해 알 수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역할에 따른 말하기와 침묵은 주목할 만한 현상 가운데 하나이다. 사람들 간에 비대칭적 관계가 존재할 경우, 다시 말해 힘(권력), 지식, 연령, 신분에 따라 분명한 위계 차이가 있을 경우, 이는 특히 언어적 영역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를테면 상관과 부하, 교사와 학생, 의사와 간호사, 어른과 아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특히 성역할과 관련하여, 대개 남자는 입이 무겁고 과묵한 사람으로, 여자는 말이 많고 수다스러운 사람으로 간주된다. 또 남자는 말을 조리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여자는 입을 다물고 경청해야 할 의무가 있는 존재로 여겨진다. 여러 사회에서 성별에 귀속되어 있는 특성을 보면, 해당 특성은 대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고,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